

2015 제3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심사평

2015년 한국건축가협회상 심사위원회는 총 57 출품작에 대한 1차 서면 평가에서 13개 작품을 선정하였고, 2015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현장 평가를 거쳐 건축적 완성도가 가장 높은 베스트 7 작품을 선정하였다. (현장 방문 순)

부산 초량동 다섯그루나무, 정영한/정영한 아키텍츠

초량동의 경사지를 따라 나 있는 굽은 골목길 옆 140m² 내외의 땅에 지어진 여행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다. 3m x 3m에서 3m x 4.5m 남짓 크기의 다섯 개의 상자가 서로 어긋나게 자리 잡으면서 좁고 불규칙한 안마당과 틈새 마당을 만들어냈다. 각 상자 안에는 여러 모양의 가파른 계단이 각층의 침대가 놓인 공간으로 연결한다. 좁은 상자의 옆과 천장의 좁은 개구부를 통해 들어온 자연광은 좁은 방들을 실제보다 크게 느끼게 만든다. 각 상자의 외피는 시멘트 벽돌, 시멘트 모르타르 스프레이, 알루미늄 패널로 감싸고, 지붕은 알루미늄으로 덮어, 동네의 기억을 환기하면서도 주변의 획일적인 경관과 차별화시키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기획, 극소 공간에 대한 과감한 실험, 기하와 재료를 통한 미니멀리즘의 미학은 관념적 접근보다 오랜 현장 경험에 뿌리를 둔 건축가의 태도와 집요함으로 결실을 보았다. 다섯그루나무는 다른 고밀도의 도시에서 실험중인 '작은 건축'의 임계점을 한국의 도시 맥락에서 묻고 실현한 문제의 작품이라고 평가하였다

2015년 9월 1일

2015 제 38회 한국건축가협회상 심사위원

김인철 (심사위원장)

이민아(심사부위원장)

김성홍, 김준성, 이충기, 인의식, 조남호 (심사위원)

박제유(건축상운영위원장)